



이시철

『학력사항』

- University of Washington 박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겸 교무처장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장
- 대전광역시 건설교통국장
- 한국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장
- 한국도시행정학회 부회장
- 1987년도 제31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합격

I. 첫머리에

“고래는 젓먹이 동물이다. 그런데 바다에서 살고 있다. 다른 물짐승들이 너는 물고기다 라고 매도할 때, 어린 고래는 항변할 길이 없다. 그러나 먼 훗날 고래가 알을 까지 않고 새끼를 낳을 때, 짐승들은 그의 실체를 알고 동료로서 인정해 주리라.”

3차 면접 시험관계서 행사를 하게 된 동기와 그 준비의 어려움을 물었을 때, 마음으로부터의 솔직한 대답을 못하고 준비한 모범답안(?)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가치관의 확실한 정립이 중요한 바, 삶의 길에서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필히 거치고, 일단 그 후엔 일로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II. 시행착오의 학습

당치않게도 오만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던 대전고 시절, 수없는 짓밟힘과 설움이 있었지만 나보다 월등한 벼들을 수백명 가진 것이 내내 기뻐었다.

1980년 격변의 물결이 지나간 그 시점에서 결산은, 아스라이 사라지는 풋사랑의 아픔과 함께 본래 예정되었던 길이 어긋나는 것 그것이었다. 순간의 선택, 서울 가는 길을 포기하고 경북대학교로 방향을 돌렸

을 때, 다른 대부분의 친구들과 함께 가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일단 낙오됐다는 모멸감이 겹치었다.

1981년의 Freshman이 본 그 시대상황에서의 캠퍼스는 겉모습이 매우 신기했으나 결국 단조로운 고교생활의 연장인 듯했다. 조출하게 허용된 「열린공간」에서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다가 1년을 보내 버렸다. 제대로 이해 못할 책에 일찍 마음이 쏠린 것이다. 동문회에 너무 진한 정을 붙인 것도 내 스스로의 생활을 찾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다만 여름방학 대 선배들을 따라 지리산에 오를 기회가 있었는데 이 때 많은 것을 느끼었다. 태운형 등에게서 온화하지만 강한 leadership을 실감한 일, 무엇이든 함께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일 등...

2학년을 못 다 마치고 도피하기로 했다. 집안 형편을 빌미로 삼아 푸르른 기성복과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는 곳으로.

군3년은 여러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잔잔한 기쁨이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은 수년간 소모할 수 있는 체력과 약간의 정신적·시간적 여유뿐이었다. 군에서 영어성서를 다 읽어 보겠다던 당돌한 꿈은 역시 물거품이 되었다.

85년 초,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보이던 개구리복으로 갈아입고 나올 때, 내 곁에는 정말로 내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되던- 그리고 앞으로 고시 공부하는데 조금은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던-착한 소녀가 함께 있었다.

머리가 좀 길어질 때쯤 해서 1차 시험 책을 한꺼번에 구입했다. 그리고 그 후 6월의 제29

회 행시 1차 때까지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 뭐든 다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뜨거운 여름 대구에서 대봉기 야구 대(對) 마산고 전에서 홀로 모교를 응원하던 날, 뜻하지 않게 합격의 소식이 날아왔다. 열심히는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실력으로 얻은 행운은 미안스럽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

가을 학기에 복학하였다. 돌아온 캠퍼스는 또 다른 세계였다.

과후배들과의 정겨운 사귄, 그리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법대 백학제에서의 생활 등이 터잡혀졌다. 방 두 개를 얻어 건우형, 기복형 그리고 연수와 함께 단출한 우리들의 궁궐 대릉전을 꾸미고 꿈같은 생활을 했다. 아까운 2학년이었고 매 끼니의 메뉴와 그 양은 우리들 마음대로였으니까.

뜨거운 햇볕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며칠 동안 대구시내 헌책방을 돌며 오래된 고시잡지를 사 모은 일이 있었다. 유신 이전 것까지 있었는데 싼 값(100~300원)에 수백 권 정렬시키고 기분만 냈을 뿐, 누워서 합격기를 읽는 것 말고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해 8월 동도공고에서 있는 2차 시험 때는 답안지 구경만 하고 나온 상태였던 바와 같이 2차에 대한 준비는 전무였으므로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태낙이와 병고, 영수에 게 자문을 구하여 경제학과 행정법부터 책을 읽어나갔다.

3년의 공백, 그 후유증은 의외로 심각했다. 복학 후 첫 시험인 중간시험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문장이 잘 이어지지 않고 글씨는 춤을 추어 아주 힘들게 치렀고, 이전만큼 순진한 마음으로 책을 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익호형이 알려준 달성군 가창의 산속으로 짐싸들고 들어갔다. 최장산 중턱의 백록에선 그런대로 기본과목인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을 두 번씩 정독할 수 있었다.

눈 덮인 산속의 생활은 신선한 그 자체였는데, 설사 공부는 게을리 해도 아침마다 계곡얼음을 깨고 몸을 씻는 건 빠뜨리지 않았고, 인형이랑 칩 캔다고 온 산속을 돌아다녔으니 그 겨울은 체력보강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다. 하루 10시간 이상 책을 보지 못했다. 함께 있던 최영삼형이 매우 열심이었는데 역시 재작년 사시에 합격하였다.

생각건대 시험공부 중 마음에 별 부담이 없을 때 기분전환 삼아 단시간 산중생활을 하는 건 몰라도, 역시 학교도서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못한 듯하다. 혼자 뛰면 도저히 못할 군장구보를 함께 호흡을 맞추어 쉽게 끝내듯이 조금은 경쟁하는 기분으로 벗들과 함께 학교에서 보조를 맞추는 것이 나을 듯하다.

Ⅲ. 대학·사회·교회·고시

봄이 되면 대학은 뜨거워진다.

3·4학년 동안 내내 캠퍼스 안에서 나는 사회와 신앙과 고시 그 각각의 요구사이에서 흔들리었다. 또한 이 모두의 문제를 포용, 해결하고자 하는 소망은 지난 1년간의 기도제목이기도 하였으나 솔직히 아직도 명확치 않아 보인다.

학교에서의 수업은 그리 많이 빼먹지는 않았는데, 제7학기 때의 조직론 Seminar 시간은 매우 인상 깊은 것이었다. 김병찬 교수님

과의 설전, 아니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그 완고함에 대하여 우리들이 좀 더 공부해서 적극 덤비지 못한 것이 아직도 안타깝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연한 논리의 이영조 교수님의 하신 재무행정, 재정학 강의도 딱딱한 가운데서 알맹이를 느낄 수 있었다.

4월 어느 날인가 사대의 한 학우가 죽은 슬픔이 도화선이 되어 커다란 문제로서 온 복현골이 들끓었고 이는 5월 축제 때까지 계속되었다. 나로선 시험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어우러져 고시원의 내 자리엔 먼지만 쌓였으니 그 해의 시험은 뻘한 것이었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에서의 2차 시험은 시험을 치르는 「기법」을 익히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 태옥이의 도움으로 group study에도 참여하고, 부족한대로 마지막 정리까지 일단 하고서 시험에 임했다. 그러나 떨어졌다. 나로선 불합격을 분해하거나 안타까워 할 자격조차 없었던 것이다.

의외로 잘 치렀다고 여겼던 행정법에선 과락을 당한 반면, 「제품 cycle이론」을 놓쳐 걱정했던 경제학에선 고득점하여 정말 놀랐다. 이후로 행정법은 학교 강의를 열심히 들어 무마하고, 전부터 흥미있었던 경제학을 기준하여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기로 했다. 어찌 되었든 이제는 1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했다. 30회에 합격한 과후배들과 태옥이를 보니, 비록 그들이 어렵게 공부했고 성실한 자세로 높은 수준에 다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토록 까마득하게 보이던 고시의 문턱이 보이는 지점까지는 나도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운 이웃들의 좋은 일은 진정 상서러운 징조이다.

1987년-새해 첫날 아버지와 함께 독서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이 생기는 듯한 느낌을 스스로에게 강요했다. 그 날의 일기를 보니 이런 부분이 있다.

“내 친구들은 이미 저만치 앞에서 달리고 있다. 그동안 난 무얼 했는가? 단 3년? 그것은 합당한 변명이 아니며 자량은 더욱 아니다. 쫓아갈 수 있다. 함께 달리자.”

겨울방학 이후로는 줄곧 병두형과 함께 지냈다. 진짜 충청도 양반인 이형의 총명하고도 신실함에 기댄 적이 많았는데, 솔직히는 서로 심심치 않게 놀아주는 데도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따뜻한 도서관에서의 공부는 사실 과분한 것이었는데 더구나 고시원이라는 고정석까지 있었으니 정말 열심히 책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주말이면 빠뜨리지 않는 벋들과의 술자리에선 늘 기분이 좋았다. 주로 2차 기본과목은 사심없이(?) 보았으나 아무래도 1차의 부담이 있어 영어는 매일 대해야 마음이 놓였다.

이즈음엔 산성교회 사람들과도 정이 담뱃 들어 동기들, 그리고 어린 후배들과의 은혜롭고 애뜻한 사귄이 내내 이어졌다. 다만 주일마다 함께 하는 성경연구에 있어서, 훈고한적으로 성경의 자구·문장 하나하나의 해석에 치중하는 공부에 심하게 반발했던 기억이 난다.

조전도사님과 찬열형, 그리고 한만호, 강종구, 팽상무-이 친구들은 신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내 스승이 되어 지금까지도 고마울 뿐이다. 교회에선 모자란 대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였고, 일요일 하루는 낭비가 아니라 감사와 소망으로 재충전되는 필요불가결한 날로 자리잡았다.

1987년 상반기의 폭풍우-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그 한가운데서 경험하고 바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그 시작이었던 수업거부 문제로 서로 외면할 일 없는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본의 아니게 떨어진 것은 안타까웠다. 지금의 대학에서 고시공부만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대로 어리석기까지 한지도 모른다. 우선 사회의 제가치가 다원화되어 고시 그 자체가 사양산업화되고 있다. 그리고 체력이나 집안사정 등 개인적인 문제는 접어두고, 바깥으로부터의 수많은 책망과 질시, 시대적 사회적 특수상황에서의 내적 갈등은 결코 외면할 수 없을 터이다.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거기에도 잠자고 있던 우리 교회에 대한 불만까지 더해져서 또 한 번 책을 보는 의미를 새로 생각해야 했다.

다만 총체로서의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어느 한 분화된 영역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훗날 알을 까지 않고 새끼를 낳기 위해서라도 책을 보는 순간만큼은 진실로 힘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세속의 가치일지언정 그것을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조금의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공공의 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이 길에 뛰어든 이상, 학교에서 배운 대로 현실에 구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책을 읽어야 했다. 그러나 바깥에서 차츰 들려오는 함성소리, 가슴 깊은 데서 솟아오르는 뜨거움을 못이기에 수시로 논리를 전환, 책을 덮고 일어났던 경험을 여러 번 하였다.

그 와중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다.

청룡기 야구에서 모교가 수 십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한 것으로서, 덕분에 시간은 더욱 쪼개졌고 술값으로 주머니도 텅텅지만 오랜 만에 크게 웃어본 날이었다.

IV. 정정진(正精進)

1차 시험의 중요성은 강조할수록 잔소리가 될 터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자신감보다 겸손이 더, 끝까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복현중학에서 있었던 31회 1차는 어찌 치렀는지 모를 정도로 어지러이 지나갔다. 헌법·영어가 좀 쉬웠었고 민법총칙과 행정학은 무척 어려웠던 기억뿐이었다. 나의 전공인 행정학은 이번에도(연 3년째) 70점대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1차 후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다.

4학년의 여름방학, 1차가 면제되는 다른 친구들이 서울의 독서실로 올라갈 때 나는 막연한 불안과 책을 함께 싸들고 집으로 왔다. 발표를 기다리는 건 처음부터 지루했다. 비로소 그간 내가 고시를 보는데(觀) 있어서 너무 오만스럽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떨어지면 여러 형편상 달리 취직을 할 생각으로 충주 중앙도서관엘 나가 Steinbeek의 「분노의 포도」를 읽기도 하고 아가사 크리스티를 탐험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공심」 책을 펴들었다. 대학 4년의 공부를 한 번 정리해 본다는 마음으로...

집에선 주로 저녁때부터 새벽까지 책을 보았는데, 먼동이 터올 즈음 이웃교회의 새벽기도 종소리에 책을 덮고 끌리듯이 집을 나섰던 기억이 새롭다. 나도 「새벽을 여는 사람들」중

의 한 부류가 될 수 있었던 건 색다른 감흥이었다. 단, 집에 돌아와서는 점심때까지 그대로 똥아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야행성으로 밤을 새우는 공부는 몸을 쉬 상하게 하는 지름길로서, 단기라면 모르되 그것을 오래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해 애를 먹은 행정법은 특히 신경을 썼으나 역시 경제학과 함께 큰 부담이었다. 평소 가장 친애하는 경제학-사시의 민법에 뒤지지 않는 방대한 분량이라 속독을 해도 각론까지 열흘쯤 걸렸다. 정치학·행정학의 경우는 공부의 깊이보다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평소의 독서편력이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선택인 조방론은 강의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쉽고도 확실한 길로 보이는데 난 진부한 방법으로 공부하여 무척 힘들었고 재미를 못 느꼈다. 어쨌든 1차 발표 때까지 윤리를 제외한 전과목을 1회독씩 할 수 있었다.

밤을 하얗게 밝히던 그 때의 느낌은 흔들림 없으면서도 어디선지 투지가 샘솟았다. 「형산의 백옥은 그 빛깔이 본시 조출하고 깨끗하거니와, 부서질 때 더 한층 맑다.」 나 또한 그렇게 부서져도 좋으리라는 생각이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1차 합격!

정말로 그 후의 2차 합격 때보다 더 기뻐다. 즉시 짐을 꾸리고 이미 유명고시원에 자리 잡았던 우리 팀과 합류했다. 감히 2차까지 욕심낼 처지는 아니었기에 다만 선배들, 친구들 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다. 그게 나쁘지는 않았다. 독서의 절대량이 부족한 나로서 어떤 논제

든 토론에 참가하여 능률을 올려야 했다. 옥상의 심야토론에서는 주로 공부량이 많은 태낙이나 석호형이 주제설명으로 이끌고 호홍이가 보충, 두형과 나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다(부현형만 아깝게 뜻을 못 이루고 우리들 모두가 함께 합격하였다). 함께 공부한 벗들에게 특히 감사한다. 시험이 가까워오자 대부분 잠을 3~4시간으로 줄이는 바람에 미안스러워 따라하였다. 그간 모아 두었던 힘을 이제 다 쓰는구나 싶었다.

한여름의 공부기간 내내 굳건한 마음의 기둥이 된 것은 물론 신앙으로, 두형과 홍이랑 주일예배를 꼭 지켰다.

책상머리에 붙여 놓았던 글귀-

「하나님으로 하여, 지금 이 땅에 내가 나 된 것의 고마움이어」

결국은 이 땅에 받을 디딤으로 하여 이 공부를 하는 원인이 되고 도 그 목표가 정해지는 것. 권력이나 부만을 찾음이 아니며 이 땅에서의 의미 있는 자리매김으로 사회에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

3. S양의 기도

스스로의 욕망만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더 못한 이웃과 전체 사회를 위해 그의 힘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 그의 의지와 건강을 지켜줍소서-하는 것도 똑같은 생각으로 부지중 내게 큰 도움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동윤형과 연수가 다녀가고 영희누나도 찾아오는 덕으로 가끔씩 몸보신할 기회가 되었으나, 시근이 땀이 뻘 땀지돈을 쓰게 한 건 조금 미안하였다.

시간이 일주일, 아니 사흘만 더 있었으면 하고 절실히 느껴질 때가 되니 어김없이 2차 시

험일이었다. 국민대에서의 첫날을 무사히 넘기고, 그 이튿날 행정학과 경제학을 쉽게 쓰고 나왔다. 독서실로 돌아오면 바로 샤워를 하고 잠시 취침, 시험 끝날까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셋째날 정치학과 조방론에서 강타를 맞았다. 정치학 큰 문제인 집단이론의 문제는 대부분의 책에 별로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 참담한 기분이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서울대의 몇몇 학생들이 떠들기를, 기말시험에서 그대로 났다느니 동대 모교수의 최신저서에만 집중적으로 나와 있다느니 하는 바람에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모두가 느꼈다.

조방은 더 큰 문제였던 것이 작은 문항으로 출제된 Delphi Technique는 어렵פות한 개념 외엔 그저 황설수설, 거의 포기지경이었다. 이 과목은 과락을 확신하고 다만 처음 의도대로 끝까지 버틴다는 기분으로 다른 문제에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데, 뜻밖에도 이것이 최고 점수였다. 결국 채점은 시험위원께서 하신다는 사실만 재확인한 셈인데, 정말로 절망적인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대반전을 노려야 할 것이다.

나흘간의 시험을 모두 끝내고 나니 그저 아무것도 앓고 한동안 잠이나 잤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V. 감사와 바램

대구로 내려와선 그간 조였던 나사를 일부러 한껏 풀어놓아 버렸다. 매일 같이 테니스를 치리라고 결심했었는데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며, 내년엔 새로 2차 공부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물론 뒷전이였다. 다만 도서관 자료실

을 드나들며 책을 많이 읽은 지난 가을, 자랑 거리는 못되지만 오랜만에 새로 읽은 「사반의 십자가」에 대한 독후감으로 영남대학교 총장 기에서 뜻밖에도 당선되어 우리교회 대학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음이 고마웠다.

대학의 마지막 학기라는 그리 달갑지 않은 현실에 우왕좌왕할 때 집안에 큰일이 연달아 터졌다. 큰어머님과 큰형님께서 연이어 중환으로 입원하셨는데, 특히나 형님의 경우는 뇌막염으로 모두들 거의 포기하기까지 했다. 과티마병원 인턴인 성엽이까지 고개를 저을 때는 형수와 어린 조카들 생각에 온 세상이 뿌옇게 보였다. 그런데 모든 이들의 한마음 한기도가 응답되어 기적적으로(아멘) 형님이 소생하시었다. 그리고 복불단행(福不單行), 며칠 후 나의 합격소식을 들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형님의 거듭남이라는 커다란 기쁨엔 감히 비할 수도 없이, 덤으로 내게도 행운의 결실이 예기치 않게 주어진 것이다.

어떤 고비에서 혼신의 힘을 모두어 결정을

짓는다는 것-이것은 평소 꾸준히 정정진(正精進)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스스로 생각해도, 새로 2차 준비를 좀 더 한다고 해서 이번처럼 합격선을 넘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겠다.

지금껏 내내 마음과 몸을 보살펴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절 한 번 더 올리나이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나타니엘이여, 내 그대에게 열정을 가르쳐 주리라. 평화로운 나날보다는 나타니엘이여, 차라리 비정한 삶을 택하라. 나는 죽음의 수면 이외에는 휴식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만족시키지 못한 모든 욕망, 모든 정열이 내 사후까지 살아남아서 나를 괴롭히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내 맘속에 대기하고 있던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표현하고 완전한 절망 속에서 죽기를 나는 희망한다.」

Andre Gide <지상의 양식>에서